

Ⅲ. 주요 경제 현안

1. 99년 한국의 통상 환경 변수와 그 영향

□ 주요 변수의 선정

99년 통상 환경을 결정할 주요 변수는 세계 경제의 안정성, 엔화 가치의 변동, 통상 마찰의 심화 여부 등

- 1998년 통상 환경

- 세계적 금융 위기로 인한 동남아시아, 일본 등 주요 수출 지역의 마이너스 성장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 엔화 환율의 대폭 절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 금융 경색으로 인한 무역금융의 애로, 국내 수요의 침체 등

- 1999년 통상 환경의 주요 변수

- (세계 경제의 경기 동향) 세계 경제는 98년 2.1% 성장에서 99년에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세계 경제에 상존하고 있는 불안 요인들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
- (엔화 환율의 변동) 우리나라 수출이 가격 경쟁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특히 주요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관계로 엔화 가치의 동향이 수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 엔화 환율은 변동 가능성이 큰 상태임
- (통상 마찰 심화 가능성) 작년이 '금융위기의 해'였다면 올해는 '통상마찰의 해'라고 불리울 정도로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클린턴의 뉴라운드 제기로 그 가능성이 높아짐.

□ 주요 변수의 진단

세계 경제 불안정이 심화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은 0.5%로 하락,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30엔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미국의 압박으로 통상 마찰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큼

주요 경제 현안

① 세계 경제의 안정성 여부

- 신흥 시장의 금융 불안, 일본 금융 개혁 및 경기부양조치의 실패 가능성 등 세계 경제 불안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진 경제국간의 정책 협조,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확립 노력 여하에 따라 세계 경제의 안정성과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의 성장 정도가 결정될 것임
 - 세계 경제는 작년(2.0% 성장)에 비해 소폭 둔화한 1.8%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이 가시화될 경우 선진국간 정책 협조가 있더라도 0.5% 성장 정도로까지 침체될 수 있음
 - 동남아시아, 일본 경제는 일본의 경제부양조치 및 금융시스템 개혁의 실패, 중국의 금융 불안 및 위안화 절하 등 불안 요인이 있음. 불안 요인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일본, ASEAN은 1999년에 0.1%~1% 성장을 보이겠지만, 현실화될 경우 일본은 -1.5%, ASEAN은 -2.5%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경제의 성장 정도는 브라질 등 중남미와 러시아 경제 불안의 해소 여부에 크게 영향 받음. 이들 지역의 경제 불안이 해소될 경우 미국은 98년 3.6% 성장에서 99년 3.0% 수준으로 소폭 하락에 그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주가 하락 → 소비 및 경기 침체, 실업 증대'를 초래해 성장률은 0.8%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음

② 엔화 환율의 움직임

- 엔화 가치는 하한 110엔/달러, 상한 145엔/달러에서 움직일 것이나, 130엔/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음
 - 브라질 등 중남미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미국의 실업 증대 및 주가의 하락이 일어날 경우 엔화 강세가 예상되지만, 수출 경쟁력 약화를 꺼리는 일본 정부의 정책 개입으로 인해 하한은 110엔/달러 수준일 것임
 - 일본 및 동남아시아의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중국 위안화 절하 가능성 및 금융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더욱이 Euro의 출범과 그 강세 예상은 엔화 가치를 더욱 떨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엔화 가치는 130엔/달러 이상이 될 가능성 높음. 그러나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동남아시아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진국간 정책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상한은 145엔/달러에서 결정될 것임

③ 통상 마찰의 심화 여부

- 98년 경제 위기로 인해 잠재되어있던 통상 마찰이 99년 경제 회복 조짐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통상 환경의 악화를 가져올 것임. 무엇보다 미국의 對韓 통상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이는 올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98년 1,640억 달러→99년 1,900억 달러), 98년 對韓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 기인함
 -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월 20일(한국시간) 의회 연두교서에서 서비스, 공산품, 농산물 등의 교역 확대를 위한 뉴라운드를 제안하였으며, 대통령에게 무역 협상에 관한 일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신속처리권(fast track)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하였음
 - 특히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국내 산업의 정부 지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는 미국이 反독점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
 - 기타 지역의 통상 압력도 강화될 전망임. Euro의 출범과 그 강세로 인한 EU의 무역적자 심화, 실업 증가 예상으로 보호무역적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EU와 NAFTA의 원산지 규정 강화로 우회 덤핑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금년 5월에 OECD에서 MAI(다자간 투자 협정)가 논의되는 등 新통상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 있음

□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영향

통상 환경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수출은 98년 대비 최고 8%까지 감소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99년 수출은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변수를 고려할 때 1,220억 달러~1,370억 달러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의 경기 동향에 따른 98년 대비 추가 영향 정도를 보면 미

주요 경제 현안

국 11억~27억 달러, 일본 1억~19억 달러, ASEAN 2억~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각 지역의 실질 경제성장률 1% 증가는 한국 수출의 1.6%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함)

- 엔화 가치의 변동에 따른 영향은 19억 달러~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한은의 연구에 따르면 엔화 10% 절하는 12억 달러의 수출 감소 효과를 가져옴)
- 환경, 노동 등 새로운 통상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 있으나, 클린턴의 뉴라운드 제기로 12월 제 3차 WTO 각료회의에서 논의가 포괄적으로 시작될 것이므로 99년도에는 그리 큰 영향이 없을 것임.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뉴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쌍무 협상을 통해 자국의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임. 특히 신속처리권이 통과될 경우 한국과 통상 쟁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의 통상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통상 환경 변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단위: 억 달러)

구 분		영 향(98년 대비 변화)	
		BEST	WORST
주요 변수	세계 경기		
	미국	11	-27
	일본	1	-19
	ASEAN	2	-25
	엔화 가치	19	-16
	통상 마찰	- 통상 현안의 다자간 협상 진행	- 미국의 신속처리권 행사, 쌍무 협상 본격화 - 반도체 구조조정에 미국 반독점법 적용 - 특히 반도체, 철강, 자동차에 대한 영향 큼
수 출		1,220~1,370억 달러 (98년 대비 -8.4%~2.9% 증가)	
경상수지		210~270억 달러 (98년 411억 달러)	

(김 용 복 ybkim@hri.co.kr ☎724-4032)